

하는 철학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와 함께한 순간들

▶ 오리엔테이션 & 새내기배움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OT:Orientation). 이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함께 있던 사람들과 곱씹게 되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동기이며 선배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돌이켜 보면 상당히 어리고 웃긴 언행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의 이야기 거리와 학교생활 노하우를 얻게 되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새터(새내기 배움터)는 학교생활에 크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의 사람이 같은 조에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매우 불편하고 기댈 곳이 없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같은 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과의 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새터는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 15 유시후

▣ 대학생들의 올림

▶ MT



차를 타고 조원들과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미션 사진, 영상들을 찍은 기억이 나네요! 종일 돌아다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다들 지쳐 쓰러졌지만, 정말 재미있던 MT였습니다.

▶ 교육봉사



처음에는 그저 많은 분과 중에 교육 봉사를 한다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입 후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연령층이 다양하여 애도 먹고 생각처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 같아서 아

쉽기도 했지만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 한 시간 더 할 거 나와서 술 먹을 시간 줄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나 역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 봉사 딱딱하게 받아들이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아이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나 역시 변화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15 김상우

▶진앙체전



대학교 와서 처음 겪은 체육대회에서 동기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다들 바빠도 같이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씻고 잠들고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 15 최현주

■ 대학생들의 울림

▶ 축제 그리고 주점



처음 경험한 대학 축제였고, 연예인을 보기위한 사람들로 가득 찬 운동장이 신기했습니다. 또 주점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 생일을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15 정은주

▶ 미네르바의 향연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상들을 나열하며 겪었던 일들을

대학생활의 울림 ■

토대로 어떠한 말과 행동이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 15 이도경(토론)



과 특성상 각자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생각 외로 서로 양보하며 의견을 조율, 진행하여 좋은 경험이 되었다.

- 15 윤동원(필드)



처음 춤을 시작할 때는 '춤이 어려워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는데, 매일 한 동작씩 연습하고 춤이 완성되는 것이 느껴져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어려운 춤을 춰냈다는 생각에

■ 대학생들의 울림

뿌듯했습니다!

- 14학번 고우라(춤)



‘솔롱고’역을 맡은 친구가 연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쿨 너~무 좋아해요" 이 부분을 너무 잘 살려서 다들 무대 뒤에서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맡은 ‘나뿔’이라는 역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던 스튜디오 룸이었는데, 연극연습도 하고 소품도 만들다보니 추억의 장소가 되었네요.

- 15 김민재(연극 ‘빨래’)



내가 맡은 부분인 MC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일에

처음부터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내 자신을 위로했다. 특히, 이러한 축제를 통해 간단하게 생각 했던 것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소와 기술이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이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14 고대건(MC)

▶도내답사



가기 전에는 편안하게 소풍 나간다는 생각으로 나갔다. 막상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나서 내가 몰랐던 제주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제주 해녀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제주 해녀 박물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제주 해녀들은 제주도에서만 있지 않고 일본 러시아 같은 곳에서도 활동했다는 게 놀라웠다. 이러한 그녀들의 개척정신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15 신민철